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생활과 윤리]

1	③	2	⑤	3	①	4	③	5	④
6	④	7	④	8	③	9	①	10	②
11	③	12	①	13	⑤	14	①	15	②
16	⑤	17	④	18	③	19	④	20	⑤

1. [출제의도] 이론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의 입장 비교하기

(가)는 이론 윤리학, (나)는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이론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의 정립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과 도덕 명제의 논리적 타당성 입증에 핵심 과제로 삼는다.

2. [출제의도] 뉴 미디어 시대의 매체 윤리 이해하기

같은 뉴 미디어 내에서 유포되는 모든 정보를 감시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뉴 미디어 내 정보에 대한 감시는 허위 정보로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오픈 어떤 정보가 허위 정보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허위 정보 유포에 따른 개인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뉴 미디어 내에서 유포되는 모든 정보에 대한 감시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3. [출제의도] 양성 평등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그림의 강연자는 밀이다. 밀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여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밀은 여성이 남성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사회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볼 것이다.

4. [출제의도] 죽음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같은 장자, 옌은 에피쿠로스이다. 장자는 삶과 죽음을 기(氣)가 모이고 흩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았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5. [출제의도] 시민 불복종에 대한 톨스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톨스의 주장이다. 톨스는 시민 불복종을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을 근거로 행해지는 부정한 법에 대한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위법 행위라고 보았다. 또한 톨스는 시민 불복종에 참여한 사람은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 [출제의도] 형벌에 대한 칸트의 입장 이해하기

(가)는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응보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사형을 살인범에게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형벌이라고 보았다. 또한 칸트는 사형이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형벌이라고 주장하였다.

7. [출제의도] 분배 정의에 대한 노직과 톨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노직, 옌은 톨스이다.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톨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으며, 정의의 원칙들은 최초의 가상적 상황인 원초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합의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한편 노직과 톨스는 모두 공정한 절차나 과정을 통하여 발생한 결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8. [출제의도] 예술에 대한 예술 지상주의와 도덕주의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예술 지상주의자 와일드, 옌은 도덕주의자 플라톤이다. 와일드는 예술이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예술이 도덕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플라톤은 예술이 아름다움과 선(善)을 표현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출제의도]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윤리 이해하기

제시문은 요나스의 주장이다. 요나스는 책임의 범위를 현재대로 한정하는 기존의 윤리관을 비판하면서, 현재대의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미래 세대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요나스는 현재대가 의도한 결과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야 한다고 보았다.

10. [출제의도] 유전자 치료의 윤리적 쟁점 이해하기

가상 필자의 필자는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가 유전학적 강화를 위한 우생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유전자 치료를 연구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유전학적 강화를 위한 우생학이 자녀의 주체적 삶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평등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를 들어, 유전학적 강화를 위한 우생학을 반대하고 있다.

11. [출제의도]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 비교하기

같은 베이컨, 옌은 레오폴드, 병은 테일러이다. 베이컨은 자연을 인간의 필요를 위한 도구로 여겨, 자연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레오폴드는 인간이 자연을 삶에 필요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인간과 자연을 모두 포함하는 생명 공동체의 균형과 안정을 중시하였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의 의식 유무에 상관없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12. [출제의도] 국가 권위의 정당화 근거 이해하기

(가)는 홉스의 주장이다. 홉스는 시민이 관행 및 공공재의 혜택 등 국가로부터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시민은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았다.

13. [출제의도] 불교 사상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불교 사상의 입장이다. 불교에서는 연기(緣起)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한다. 연기란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因)과 조건(緣)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기론에 따르면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하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연기의 법칙을 깨닫게 되면 모든 존재에 대하여 자비(慈悲)의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고 본다.

14. [출제의도] 예술의 상업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아도르노의 주장이다. 아도르노는 상업화된 예술에 관해 '문화 산업'이라고 비판하면서, 현대 예술은 자본에 종속되어 문화 산업으로 획일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아도르노에 의하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 산업은 획일화된 문화 상품을 끊임없이 생산한다. 또한 문화 산업의 산물인 문화 상품을 소비하는 대중은 자유로운 상상력과 반성이 마비되어 능동적인 사유가 불가능하게 된다.

15. [출제의도]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이해하기

신론 칼럼의 필자는 과학자가 연구 활동에서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이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필자는 과학자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16. [출제의도] 질적 공리주의와 양적 공리주의의 비교하기

같은 질적 공리주의자 밀, 옌은 양적 공리주의자 벤담이다. 밀은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벤담은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인 차이만 있다고 보고 쾌락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밀과 벤담은 모두 최대 행복의 원리가 옳은 행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17. [출제의도] 종교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가)는 자신이 믿는 종교만을 절대시하며, 타 종교의 교리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입장이다. 반면 (나)는 타 종교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취하며, 타 종교의 교리나 할지라도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면 참일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한편 타 종교와의 대화에 대해 (가)는 무의미하다고 보며, (나)는 종교 간 갈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18. [출제의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해하기

제시문의 '나'는 기업이 합법적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기부 행위를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어떤 사람'은 기업이 합법적 이윤 추구 이외의 사회적 책임을 저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의 주장에 대해 기업은 자선 행위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19. [출제의도] 음식 윤리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옌은 공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식 섭취에 있어 지나침은 무절제이므로, 이성을 발휘하여 음식에 대한 지나친 욕망을 절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공자는 음식을 섭취할 때 예에 어긋남이 없도록 경건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와 공자는 모두 음식을 섭취하는 태도가 도덕적 품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20. [출제의도] 다문화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가)는 다문화주의, (나)는 동화주의의 입장이다. (가)는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조화되어 공존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나)는 이주민의 문화를 주류 문화에 동화시켜 단일한 문화로 형성해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